

# 주의 날

\* 10/28(수) 데살로니가전서 1-5장 + 데살로니가후서 1-3장

## 데살로니가전서

- 1장 인사말, 감사와 칭찬
- 2장 바울의 사역 회고, 고난 받음
- 3장 디모데의 보고, 바울의 기도
- 4-5:22 바울의 권면
- 5:23-28 바울의 기원, 당부와 축원

## 데살로니가후서

- 1장 인사말, 감사와 위로, 바울의 기도
- 2장 재림에 관한 미혹, 경계, 권면과 기원
- 3장 기도 부탁과 기원, 규모 없는 자들, 권면, 축원

### Before 출치며 읽기

<종말>, <주의 날>, <재림>에 대하여 성도가 <지금>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

### After 묵상하기

- # 세상의 평가
- #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
- #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
- # 주의 날

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
기독교로 개종하며 이전의 삶, 관계들과 겪는 갈등이었습니다. 가족과 동료, 이웃들은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. 국가와 도시를 위한 제의와 종교/사회 활동을 중단하자 로마 시민의 의무를 저버린 불명예스러운 자라고 비난했습니다. 경제적 불이익 등 실제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(살전2:14, 3:5). 옛 방식과 삶, 관계로의 회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.

재림에 대한 질문과 오해들도 있었습니다.

그들은 <죽은> 성도들이 재림 때에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. <주의 날>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. 일상을 등지고 일을 중단하여 구제로 근근이 생활했습니다. (살전5:1-11, 살후2:2)

바울은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.

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,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, 계속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. 함께한 시간, 따뜻한 환영과 사랑, 헌신, 기억들을 상기시킵니다. (살전1:2, 8-9, 2:17/ 1:5, 9, 2:1-12).

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냉소적인 사회 한 가운데서

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.

바울은 그들에게 ‘혼자가 아니다’라고 위로합니다.

신앙의 공동체가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,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. (살전1:6, 2:13-14, 살후1:3-4/ 살후2:13-14, 16-17)

성도들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구합니다.

<주의 날>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흄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.

(살전1:6, 2:4, 6, 4:1, 3:12-13, 5:9, 23, 살후1:3)

바울은 편지글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.

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냉대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.

바울도 겪었고, 성도들에게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(살전2:2, 14-16, 3:3-4).

세상은 의무를 저버린 불명예스런 자, 수치스런 자로 성도들을 비난하지만,

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명예롭고 거룩한 것입니다(살전4:3-7).

불신자들이 말하는 <평화와 안정 Pax Romana>은 반전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(5:3, 4:13).

멸망의 날, 슬퍼 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. 성도들은 늘 <주의 날>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.

(살전1:7-10, 2:19-20, 3:13, 5:9, 살후1:4-12, 2:14).

불신자들은 <죽음>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, 성도들은 <죽음>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.

예수를 <일으키신>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<잠든> 성도들을 약속대로 일으키시고,

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(살전5:13-18).

잘못된 재림 신앙에 경거망동하는 자는 <규모 없이 행하는 자>입니다(살전5:14, 살후3:6-12).

바울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, 주어진 일을 경시하며,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.

“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(살후3:10)”

<주의 날>은 임박했으나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(살전5:1-2, 살후2:1-2).

종말 전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(불법의 사람, 살후2:3).

그러나 ‘막는 것’과 ‘막는 자’는 잠깐이요(살후2:6-7),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,

이 모든 것은 사탄에 속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(살후2:8, 11-12).

바울은 냉대와 압력 속에서도 본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(살전3:12, 5:15).

<주의 날>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제자리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,

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.

바울 자신이 그러했듯, 세상이 바라보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,

<주의 날>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설 것을 권면합니다.

(살전2:9-12, 살후3:7-8, 10)

## 통독의 맥 잡기

### 데살로니가전서

1:1 인사말

1:2-10 감사와 칭찬

2:1-12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 회고

2:13-16 팁박에 대한 격려

2:17-20 몸은 멀리 있으나 마음은 아니니!

3:1-10 디모데의 보고

3:11-13 바울의 기도

마음을 굳건하게, 주의 날에 흄 없게 하시기를

4:1-5:22 바울의 권면

거룩함, 형제사랑, 자기 손으로 일하라

그리스도의 재림, 재림의 때와 시기

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, 기타 권면들

5:23-28 바울의 기원, 당부와 축원

### 데살로니가후서

1:1-2 인사말

1:3-10 감사와 위로

1:11-12 바울의 기도

2장 재림에 관한 미혹, 바울의 권면

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

3:1-5 바울의 기도 부탁

3:6-12 <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>에 대한 경계

3:13-15 권면들

3:16-18 평강 기원, 문안과 축원